

Washington DC 2025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 동창



EWHA *in* DC

OCTOBER 23-26, 2025
HYATT REGENCY DULLES, VA

초대합니다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아름다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이화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다시 만나는 소중한 시간,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새로운 내일을 나누는 자리에 이화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게 물든 단풍이 도시를 감싸 안는 계절,
워싱턴 DC는 고요한 깊이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화의 이름 아래 모이는 우리의 만남이
오래도록 마음 속에 따뜻한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Ewha in(人) DC: Go Together, Blossom Forever!

워싱턴 DC 지회 일동

이화사랑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진	선	미
김경아(영문 81)	김공숙(생물 68)	이명지(영문 67)
김귀현(영문 56)	김성혜(보교 88)	이정렬(사회생활 61)
박옥영(교육 61)	김윤미(국문 87)	이지은(불문 96)
신복순(동양화 60)	김지완(도서관 89)	이혜자(도서관 63)
윤향근(교육 82)	서혜경(정외 90)	장경희(수학 70)
이영주(간호 72)	신장현(교육 57)	정문자(의학 66)
	안경미(의학 69)	조은희(경제 91)
	양미라(성악 75)	지영자(체육 72)
	오혜경(영문 72)	최미나(관현악 90)
	유연담(정외 62)	최숙자(도서관 69)
	윤중화(생물 82)	최영옥(약학 88)
	이도실(영문 60)	홍성자(영문 64)
		강현주(간호 91)
		강혜숙(과학교육 70)
		고소영(교육심리 86)
		고승현(통계 92)
		권수미(도서관 86)
		권유미(무용 97)
		김수경(교육 61)
		김정자(가정 62)
		민병희(영문 60)
		박희문(과학교육 87)
		신신자(영문 65)
		신율미(수학 84)
		신현주(교육심리 96)
		엄미향(과학교육 90)
		오미선(사회생활 86)
		오선경(영문 60)
		이윤진(불문 94)
		이은경(정외 78)
		장익정(성악 06)
		최지영(관현악 00)



목 차

초대의 글

이지은 /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4
이영완 /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축하의 글

이향숙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5
이명경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6
Bishop Mary Swenson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	

이화 소식	7
2024 샌프란시스코 총회를 마치고	8
지회 소식	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공문	19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	20
동창회 장학금 / 기금 소식	21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일정 / 관광 안내	22
2025 Ewha in(人) DC: "Go Together, Blossom Forever!" 참가 신청서	23
일일 관광 / 호텔 내 활동	24
광고	25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보팀

발행인 이지은(96 불문)
 편집인 김성혜(88 건교), 최미나(90 관현악),
 이영은(01 경영), 김선영(09 심리)

초대의 글



이지은 (96 불문)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워싱턴 DC에서 이화인의 잔치가 2025년 10월 23-26일 개최됩니다. 워싱턴 DC는 1976년 첫 번째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개최지이며 1985년, 1995년, 2013년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총회가 열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외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 연구 기관이 자리한 지성의 도시인 워싱턴 DC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회의사당, 백악관, 링컨 기념관 등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명소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의 슬로건인 “Ewha in(人) DC: Go Together, Blossom Forever!”의 의미처럼, 이화의 정신을 계승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동창들의 연대와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워싱턴 DC의 100개 가까운 박물관 중 21개가 소속된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인 National Gallery of Art와 함께 미국 역사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백악관을 거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던 시기 외교 무대의 중심이었으며 최근에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공식 등재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 Museum)을 둘러보시며 한국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기념관을 둘러보고 워싱턴의 중심 케네디센터에서 올려 퍼질 이화 음악회가 동창분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호텔에서는 요가와 필라테스, 클래식 음악 여행과 퍼스널 컬러 컨설팅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준비될 예정이오니 유익한 시간 함께 나누며 일상에서 벗어나 동창분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워싱턴 DC 총회에 참석하시어 다시 한번 총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총회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나은 북미주 지회연합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즐기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화의 빛이 워싱턴 DC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함께 나아가며, 이화인으로서의 가치를 영원히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초대의 글



이영완 (81 정외)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존경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2024년, 황금빛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이화인의 연대와 열정을 새롭게 빛낸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라는 주제 아래, Napa Valley의 풍미를 나누고 Afternoon Tea Party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만찬과 오락 시간에 함께 노래하고 웃던 모든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 이화인들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함께 다지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빛나는 감동에 이어, 2025년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wha in(人) DC: Go Together, Blossom Forever!”라는 주제 아래 열릴 이번 총회는 이화 동창 여러분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며, 끊임없이 꽃을 피우는 단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이화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화인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 우리 이화를 더욱 빛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이지은 총회 회장님과 최미나 총회 준비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워싱턴 DC 지회 동창들이 정성과 열정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회 동창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또한 참석하셔서 이 뜻깊은 자리가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워싱턴 DC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품고 단결의 가치를 더욱 깊이 새기며, 모두 함께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를 고대합니다.

이화인과 함께 걸어가며.

축하의 글



이향숙 (86 수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제18대 총장 이향숙입니다. 사랑하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wha In(人) DC: Go Together, Blossom Forever!”처럼 우리 이화인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화의 총장으로 취임하여 이화의 선배님들이 이루신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이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이화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서 창조적이고 포용적인 혁신을 통해 사람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이화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동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이화가 오늘날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매년 이화의 이름으로 소통하고 이화 정신을 나누려는 북미주 동창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성취가 우리 이화의 자부심이자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이화는 거대한 기술 대전환 시대에도 최초와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선도하며, 이화형 미래 교육 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화는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세계적 여성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할 것입

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적화된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몰입형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종합대학인 이화의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초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초와 실용 학문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화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한층 더 과감하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화의 139년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학문적 우수성, 사회적 역할과 기여, 국제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이화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화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이화가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교의 빛나는 앞날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이화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님과 임원진분들, 그리고 모든 북미주 동창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직접 찾아뵙고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이향숙 총장 취임식 개최

제18대 이향숙 총장 취임식이 1월 24일(금) 김영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내 주요대학 총장 등 외빈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전 총장 및 교직원,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동창과 재학생 총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향숙 총장은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 선도하는 이화’의 비전을 다짐하며,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출하고, 거대한 기술 대전환 시대에 변화를 선도하는 이화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 및 경쟁력 제고/ AI시대를 대비하는 고등교육 대전환/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 시스템 확보/ 행정시스템 혁신 및 캠퍼스 인프라 고도화/ 이화 브랜드 가치 및 글로벌 위상 제고/ 이화의료원 경쟁력 강화 등의 6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이화여대 최초의 과학기술계열 총장으로 선임된 이향숙 총장은 본교 수학과 학·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암호학 분야에서 대표적 연구자로, 여성 최초의 대한수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이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기초과학연구원 이사 및 본교 수리과학연구소장,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등의 교내 보직을 역임했다.

축하의 글



이명경 (77 무용)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워싱턴 DC 총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의 선후배들 안에 영글어 가는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풍성한 열매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께 문안드립니다.

이 땅 여성들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셔서 139년 전에 모교 '이화'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화의 '이화됨'을 새로이 돌아보는 이맘때에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워싱턴 DC 총회의 개최 소식을 듣고 축하와 축복을 담아 인사의 글을 엮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기도 가운데 이렇게 유의미한 행사를 힘써 준비하고 계실 워싱턴 DC 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떠올리면서 그 노고에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저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한편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북미주 각 지회 선후배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누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하니 어느새 몸과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제19대 총동창회는 선후배 동창들이 마음 모아 주시고 손잡아 주신 덕분에 '2024 이화인의 밤'으로 한 해를 갈무리하고, 2025년 3월에 총회를 거쳐 다시금 연임하게 되었다는 이즈음의 상황을 전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총동창회는 여상히 4월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외 지회장 간담회'와 5월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9월 '대바자회', 11월 '이화인의 밤' 등 연례행사를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워싱턴 DC 총회에서 뵙기를 기대하며 때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 국제재단 이사장 축하의 글



**Bishop
Mary Ann Swenson**
President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 University

Dear Family and Friends of Ewha,

2024 was an amazing year. We visited the Ewha campus for the 138th anniversary and had a grand celebration at the annual board meeting in San Francisco. And now we have the wonderful privilege to live into 2025 as we anticipate a gathering with the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 University in Washington, D.C. This year's theme "Ewha in(人) DC: Go Together, Blossom Forever!" perfectly captures the spirit of Ewha and the journey we have shared as a global community.

For decades the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of Ewha have worked closely to support Ewha's mission. Your dedication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niversity's growth and the opportunity to provide world class education to its students.

We are especially excited to welcome Dr. Hyang-Sook Lee, the newly inaugurated President of Ewha W. University. We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her and learning about her vision for the university's future.

Ewha, meaning "pear blossom," symbolizes growth, resilience, and unity. Just as the pear blossom blooms year after year, so too does our global Ewha family, flourishing together. The support we offer Ewha reflects our shared belief in the power of education to transform lives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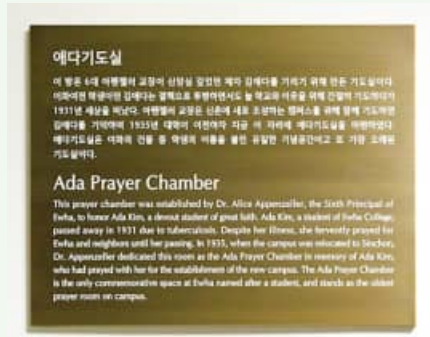
Let us continue working together with renewed passion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of Ewha women, ensuring that Ewha continues to blossom forever.

With warm regards and best wishes,

Mary A. Swenson

이화 소식

모교 사랑과 신앙심을 기린다, 애다기도실 헌판식 개최



본교는 고(故) 김애다 동창(미상~1931)의 모교 사랑과 신앙심을 기리는 ‘애다기도실 헌판식’을 12월 18일(수) 본관에서 개최했다.

고 김애다 동창은 일제강점기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촉망받는 학생이었으나 안타깝게 결핵에 걸려 5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앞둔 1931년 소천했다. 한국 감리교계의 거목인 정동교회 김중우 목사의 딸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김애다 동창은 생전에 학교와 친구,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이어갔다. 특히 정동교사의 신촌 이전을 위해 노력하던 제6대 아펜젤러 교장과 함께 학교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며 큰 힘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애교심과 신앙심을 기념하기 위해 아펜젤러 교장은 신촌캠퍼스가 완공된 1935년 본관 3층에 지금의 애다기도실을 마련했다. 애다기도실은 본교 건물 중 학생의 이름을 붙인 유일한 기념 공간이자 가장 오래된 기도실로 지금도 조용히 기도하고자 하는 이화여대 학생, 교직원, 동창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이날 헌판식에는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김인희 이화여대 전 교수, 김형희 목사를 비롯한 김애다 동창의 조카와 그 자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헌판식 예배는 안선희 교육실장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찬송과 기도, 성경 봉독에 이어 ‘애다, 기도의 등불’ 주제 말씀과 특송, 축도의 순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김애다 동창의 후손들은 본교에 5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 기금으로 본교는 김애다 동창의 숭고한 기독교 정신을 기리기 위한 ‘김애다 이화역사 연구기금’을 설립한다. 김애다 동창을 비롯해 당시 아펜젤러 교장과 선교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학술지 게재 및 논문집 출간을 통해 널리 알리는 데 쓰일 계획이다. 본교 교육학과에 재직했던 김인희 교수는 이날 후손 대표로 참석해 “돌아가신 지 오래된 김애다 고모를 기념하는 오늘 행사로

이화를 다시 찾게 되니 감사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김애다 고모에 관한 자료를 갖고 왔으니 이화에서의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본교는 김애다 동창의 정신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이화의 여성사적이며 기독교사적 공헌과 업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교수, 직원, 동창을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김애다 이화역사 연구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더 많은 이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본교 연구자 39명, 세계 상위 2% 과학자 선정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추진해 온 ‘이화 프론티어 10-10 사업’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본교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교는 ‘이화 비전 2030+’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신설된 ‘R&D총괄기획단’을 중심으로 연구 비전과 기획을 강화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분야와 미래 도전분야를 적극 육성하고자 ‘이화 프론티어 10-10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창의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 정부 주요 지원사업 선정 및 세계 최정상급 국제 논문 게재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대와 세계적 출판기업 엘스비어(Elsevier)가 공동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2023년 인용 데이터 기준)에 본교 연구진 총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9명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교육학과 리처드 라이언(Richard M. Ryan) 초빙석좌교수는 세계 상위 0.01%의 최정상급 연구 실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됐다.

상위 2% 연구자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를 기반으로 △22개 주요 학문 분야 △174개 세부 분야별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 논문 피인용도 영향력을 분석해 선정한다. 교육 심리학 및 인지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라이언 교수의 논문 피인용 횟수는 무려 세계 상위 0.01%에 달하며, 세계 상위 2% 연구자 중에서도 세계 종합순위 16위, 국내 대학 소속 교원 중 1위를 기록했다. 미국 로체스터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그는 본교 교육학과 프론티어 10-10 사업단(사업단장 김안나 교수) 초빙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윤여민 석좌교수(환경공학), 김광명 석좌교수(약학), 올리버 리치몬드 초빙석좌교수(국제학), 김희정 초빙석좌교수(심리학), 김은아 초빙석좌교수(물리학), 수니치 후쿠즈미 교수(화학·나노과학), 박태현 교수(식품영양학) 등 이화 프론티어 10-10 사업 초빙 석학 8명을 비롯해, 형광화학센터 및 분자인식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11년 연속 상위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HCR)에 선정된 윤주영 석좌교수(화학·나노과학)와 산소화학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남원우 석좌교수(화학·나노과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 연구자 총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상위권 연구자의 증가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도입한 ‘이화 프론티어 10-10’ 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본교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이화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분야(5개)와 미래 도전 분야(10개)의 총 15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각 사업단은 국내외 석학 및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세계적 연구기관들과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국제 학술대회 및 초청 특강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IRN)를 확대하는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샌프란시스코 총회를 마치고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이영완 (81 정외)



2024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미 있는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참석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행사 첫 날에 한국과 미주 각지에서 도착한 동창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비빔밥과 못국으로 피로를 풀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모교 총동창회에서는 새로이 디자인된 졸업 가운과 악세서리 두 세트를 북자연에 증정하여 졸업 가운을 입고 포토존에서 멋지게 사진을 찍으며 옛날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저녁 정기 이사회에서는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총회 첫 날부터 중요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명소를 둘러보며 관광을 즐긴 후,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통해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는 유경하 의원장과 백옥경 역사관장의 깊이 있는 연설이 이어졌고, 모교 음대 배일환 교수님과 일행의 연주가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토요일은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참석한 동창들께 Fascinator를 선사해 귀부인의 자태를 연출하게 한 Afternoon Tea Party에서는 북가주 동창들이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다과를 나누며 유쾌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저녁 만찬에서는 이화 합창단의 감동적인 공연과 동창이 선보인 국악 공연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만찬 및 오락 시간에는 사회자의 재치로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두 참여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기 위해 기조 연설 시간을 생략하고 오락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손님들의 참석으로 연설 시간이 늘었으나 프로그램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였고, 한국어 연설을 영어 자막으로 띄우는 것은 물론, 실시간 번역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영어권 참석자들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북가주 지역에서 새롭게 합류한 60여 명의 차세대 동창들은 이번 총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고, 총회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행사 분위기를 더욱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활약 덕분에 총회는 더 풍성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북가주 지역을 넘어 북미주 지회연합회 모든 동창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ATLANTA 지회장 차희숙 (77 체육)

애틀랜타 지회는 선후배 동창의 친목과 화합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각 부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교부는 매달 세 번째 월요일 오후 2시 비존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 선교부장 조성숙(64 가정관리) 동창 외 18명의 기도용사들이 모여 이화 선교수첩과 매달 본교 기도 모임에서 발행하는 이화 선교사들의 보고 및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기도 모임 때 모인 헌금은 부장이 본교 선교부로 보내고 있다.

합창부는 단장 이인순(69 약학) 동창의 지휘 아래 매달 첫 번째, 세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여 연습한다. 10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First Baptist Church에서 6년만에 제 2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지휘자 이미애(89 성악), 반주 김태원(86 피아노) 동창과 30명의 단원들은 환상적인 화음을 선보였고, 가족과 외부인사 등 250여 명의 참석자들은 관람 후 리셉션을 가졌다.

골프부는 매달 세 번째 수요일 라운딩을 한다. 부장 이인옥(85 가정관리), 총무 이경희(87 무용) 동창이 골프를 사랑하는 42명 회원들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제 18회 총장배 골프 대회가 10월 16일 수요일 Old Atlanta Golf Club에서 개최되었다: 챔피언/박혜정(82 신방), 그로스/이영임(86 섬유예술), 장타상/주성자(89 독문), 근접상/차희숙(77 체육).

동창회 야유회가 6월 9일 오후 1시 McDaniel Park에서 열렸고, 38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행복한 하루였다.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후 바자회, 라인댄스, 게임, 복권추첨으로 푸짐한 상품들을 나누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졌다. 동창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길 기대한다.



BALTIMORE 지회장 김영진 (80 의류직물)

볼티모어 지회는 2025년 지회장으로 김영진(80 가정) 동창, 부회장 권혜원(91 화학) 동창, 그리고 오랜 기간 총무로 봉사한 박은선(82 법대) 동창이 다시 총무로 선출되었다. 다년간 부회장과 회계를 맡아온 이영희(63 약대) 동창은 타주 이사로 회계를 내려놓았다.

2024년 지회장 이진숙 동창의 지도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라인댄스 모임이 동창과 타인종들의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창들의 건강증진과 결속을 다지고 긍지를 심어주었다. 2024년 5월 지명희 동창의 아름다운 연못과 경관을 가진 자택에서 동창 28명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며 이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11월에는 30여 명이 식당에서 즐거운 모임을 했으며, 연령대별 모임에서는 후속 모임을 하며 동창들 간의 공감과 끈끈한 유대감을 더하였다. 그동안 볼티모어 지부를 탄실하게 이끌어 준 자랑스러운 회장들과 홍경주(62 약대) 이사장, 강성려(67 사대) 동창은 지회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선후배 간의 연결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다.

오광자(65 가정) 동창은 Miller's Grant 뉴스에 기사화된 바와 같이 화가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담긴 훌륭한 미술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손형란 동창은 많은 아름다운 글들로 해외문학상 대상을 받았으며, 한국일보에도 계속 글을 기고해 이민자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 주고 있다. 이사분들을 포함하여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임에 계속 참석해 온 우리 선후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볼티모어 지회 파이팅!

지회 소식

BOSTON

지회장 **공정원** (83 영문)



2024년 이화여대 보스턴 지회에서는 “EWHA BOSTON in STEM”이라는 커리어 개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데 관심이 있는 이화여대 동창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뛰어난 여성 인재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원하기 위한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이다. 경력 개발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이화여대 동창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 보스턴, 시카고,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각 지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까지 50여명의 동창이 참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계속 이어 갈 계획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학생 4명을 선발하여 총 4,500불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지원자가 있었던 보스턴 지회의 장학 기금 모금은 보스턴 이화 동창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져 온 아름다운 선행이다.

8월에는 보스턴 Museum of Fine Arts에서 한류 전시를 즐겁게 관람하였다. 9월에는 뉴잉글랜드 애플 피킹 행사를 통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상쾌하고 신선한 가을 공기, 맛있는 김밥과 더불어 애플사이다를 즐기면서 선후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 CALIFORNIA

지회장 **조혜진** (89 장식미술)

남가주 지회는 2024년 1월 신임 회장, 임원진, 각 단체장들이 지난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단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2월 29일-3월 1일에는 소외 계층을 위한 콘서트를 살롱 장애인 선교회와 벌몬 양로 센터에서 개최하였고, 3월 2일에는 본교 4명과 현지 동창 7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화여대 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양악과 국악의 다양한 연주를 선사하였다.

4월에는 한의사 남궁봉일 이사님의 재능 기부로 동창들이 공진단을 직접 만들었고, 6월 2일에는 합창단 정기 공연, 6월 24일에는 120여 명의 동창과 지인들이 참여한 총장배 골프 대회, 8월 25일에는 한국 음악과 50주년 행사를 위해 본교 40여 명의 학생 및 교수진들의 연주회 개최,

8월 29일에는 동창 및 가족들이 헐리웃볼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콘서트를 관람하는 멋진 경험을 하였다.

9월 21일-30일에는 녹미회 회원들이 제8회 정기 녹미전을 성황리에 마쳤고, 12월 7일 정기 총회 및 송년회에는 120명이 참석하여 회계 보고, 신임 김주경(77 관현악) 이사장 인사, 동창 자녀 7명에게 장학금 수여와 함께 미니 콘서트, 댄스파티, 추첨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새로워진 남가주 웹사이트(www.ewhasocal.org)는 동창들의 용이한 가입 및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2025년 남가주에 일어난 산불 피해를 입은 동창들을 위해 모금을 시작하였고, 타주 동창들도 참여하여 이화인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N. CALIFORNIA

지회장 이영완 (81 정외)

2024년을 빛낸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순간들!

2024년은 이화여대 동창회 북가주 지회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한 해였다. 올해는 북가주 지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하며 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 찾아온 이화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 하였다.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라는 주제로 진행된 총회는 오랜 준비 과정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젊은 동창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지회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여러 세대가 모여 야외 피크닉을 즐기며 음식을 나누고 알차고 신나는 게임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총회 이후 북가주 지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으며, 회원들은 한층 더 가까워진 마음으로 다양한 소모임과 지역별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며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을 향한 희망과 기대 속에서 2월 월례 모임은 구정을 맞아 전통 문화를 함께 즐기는 따뜻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동창들은 윷놀이, 공기놀이 등 한국 전통놀이를 즐기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고, 맛있는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북가주 지회는 변함없는 열정과 단합된 힘으로 이화 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CLEVELAND

지회장 김예경 (96 사회생활)

미국 오하이오 북동부에 위치한 클리블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지회는 매달 한번 정기적인 “이화 만남” 모임을 통해 이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 간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나누고 사회 후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이화인으로서 모교 후배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교 국제재단 및 클리블랜드 지역 장학금을 후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가정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과 자녀를 위한 단체인 Center for Domestic Violence와 Womankind를 지원하였다. 7월에는 동창들과 Cleveland Museum of Art의 Korean Couture: Generations of Revolution 전시를 관람하였다. 최근 국내 청송 심씨 가문의 무덤 단지에서 발굴되어 현재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의 일부가 된 의류를 전시함으로써 17세기 최상위층 복식을 미국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세기를 넘나들며 다양한 패션과 예술로 승화된 높은 한국문화를 보게 되니 한민족으로써 자긍심이 고취되었다.

클리블랜드클리닉 전문의며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로 활약 중인 전희선(88 의학) 동창은 작년과 올해 초부터 캘리포니아 페스티벌, 서울 솔로 연주에 이어 PianoTexas로부터 Amateur-Teachers-Program에 선택받아 임윤찬이 연주했던 Van Cliburn Concert Hall에서 두번이나 연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랫동안 이화 만남을 반짝반짝 빛내주던 동창 두 분이 2024년에 타주로 이주하셨다. 2025년에는 새롭게 클리블랜드로 오실 분들을 기대해 본다.



지회 소식

DENVER

지회장 **장문선** (94 도예)



덴버 지회는 2024년 1월부터 새로 선출된 임원진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창들 간의 유대감을 다졌다. 설날을 맞아 떡국 모임을 시작으로 한 해를 함께 맞이하였다.

9월에는 가을 정기 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CU Boulder 대학 박사 과정에 있는 신입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옥(68 국문) 동창이 전하는 덴버 지회의 초기 설립 과정을 들으며 지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화 국제재단에 장학금을 후원하는 전통을 이어가기로 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5년의 시작은 신년 총회 및 떡국 모임으로 함께 하였다. 총 12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 행사 보고와 재정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임은혁(72 약학) 동창의 배우자인 김봉전 박사의 한인 회장 선출, 백홍자(80 조소) 동창의 개인전 개최, 이후원(91 가정관리) 동창의 합창 공연 등 동창들의 다양한 소식을 나눴다.

모임을 마치며 참석한 동창들에게 모교의 전통을 담은 졸업수첩, 아름다운 교정이 담긴 달력, 핸드 크림과 립밤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전달해 훈훈한 분위기를 더하였다.

DETROIT

지회장 **박은하** (92 교육공학)



2024년 5월 18일 홍화 레스토랑에서 봄 동창회를 개최하였다. 1부 회계 보고 및 장학금 수여식에서 지역사회 1명, 동창 자녀 1명, 동창 유학생 7명, 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특별 행사로 홍영희(57 영문) 동창의 뜻깊은 구순 축하파티가 열리고 손수 준비해 온 떡과 함께 훈훈함이 더해졌다. 2부에서는 U of M 박사 과정 중인 이다은(18 과교) 동창이 '과거로부터 얻는 기 후 통찰'을 주제로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학술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8월 10일 오주리(78 섬예) 동창 자택에서 하와이안 컨셉으로 임원 모임을 열었다. 초대받은 미시간에서 공부 중인 후배들은 가족 없는 낯선 미국에서 동창 선배들의 정을 느끼며 동창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11월 16일 Northville에 위치한 Meadowbrook Country Club에서 송년회를 하였다. 홍영희(57 영문) 동창부터 2010년대에 졸업하고 미시간에서 석/박사 과정에 있는 동창들까지 3대가 어우러진 자리였다. 샌프란시스코 총회 보고 후 '디트로이트 지회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양혜인(14 사생) 동창은 이화에 대한 퀴즈를 준비해 추억을 소환하였다. 대강당 앞 계단의 수가 49개, 딸기골 분식, 가미 분식, 그린하우스 등등 정답이 나올 때마다 추억을 이야기하느라 퀴즈가 지연되기도 했다. 정답자에게는 이화 상품을 나누고 모교 달력과 이화 수첩을 배포하며 이화 대외협력처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HOUSTON

지회장 이은경 (92 사회생활)

휴스턴 지회는 2024년 5월, Salvation Army International Corps and Community Center에서 지역 장학금 수여자로 선정된 두 명의 여학생들을 축하하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연중 네 차례 진행된 미술 산책 모임에서는 양영희(93 조소) 동창이 미술사 강의를 맡아 그리스 미술부터 20세기 현대 미술까지 예술의 흐름을 조명하였고, 강의 후에는 식사를 함께 나누며 선후배 간의 예술에 대한 배움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짝수 달마다 열리는 북클럽에서는 백지민(81 건강교육) 동창의 인도로 현대 문학부터 고전 문학까지 함께 탐구하고 서로의 다양한 시각과 감상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는 박영일(72 의류직물) 동창 자택에서 약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과 함께 게임, 싱어롱 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새로 선출된 임원단 소개 및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며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나누었다.

2025년 1월에는 “이화 동창회 설날 잔치”가 열려 휴스턴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120인분의



음식을 대접하였다. 여러 동창들의 수고와 더불어 김진익(22 한국음악) 동창의 태평소 연주, 김정래(18 한국무용) 동창의 창작 무용 공연 등이 더해져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휴스턴 지회는 동창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앞으로도 각종 후원과 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LLINOIS

지회장 서석영 (94 정외)

2월 17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Wolf Point West - Sky Lounge에서 2024년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축하 동영상 시작으로, 2023년 임시 총회 회의록 승인, 업무 보고 및 2024년도 행사 및 사업 설명이 있었다. 총 15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식사와 상품 추첨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친목을 다졌다.

3월에는 "The Electoral System in the US"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주최하였고, 4월 및 9월에는 커리어톡 온라인 세미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을 모시고 직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5월 18일에는 Montrose Park에서 봄맞이 야외 바비큐 행사를 개최하여 총 27명의 동창 가족과 아이들이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였다.

9월 29일에는 Hemingway 및 Frank Lloyd Wright로 유명한 Oak Park의 Taylor Park에서 가을맞이 야외 피크닉 행사가 있었다. 가족사진 촬영, 목찌빠 게임으로 즐거운 야외 나들이가 되었다.



2024년 11월 및 2025년 2월에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 선출 및 장학/후원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월 21일에는 2025년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회 소식

MINNESOTA

지회장 **김정은** (90 체육)



2024년 11월 23일 김정은(90 체육) 동창 자택에서 조금 이른 듯한 연말 모임을 가졌다. 11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팻력으로 준비해 온 음식들과 함께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2024년 한 해의 동창회 모임 활동 및 회계 보고가 있었고, 2025년 동창회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홍선화(70 약학) 동창이 미네소타 지역사회에서 후원이 필요한 여성 단체를 찾아 작은 도움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 모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서로 나누고 크리스마스 배경의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노래에 맞춰 가벼운 댄스 시간을 가지며 선후배들이 함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김정은(90 체육) 동창의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헤어 밴드 등 세심한 준비 덕분에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참석한 동창들은 서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두 행복한 연말을 보내기를 기원하고 구정 맞이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NEW YORK

지회장 **김영신** (88 독문)



2024년 5월 25일 The Saint Andrews Golf Club에서 열린 'BBQ & Silent Auction' 행사에는 11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싱그러운 날씨 속에서 바베큐와 다양한 옥션, 나눔 바자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특히 동창들의 기부 물품으로 진행된 옥션과 바자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수익금은 2030세대 동창 지원과 다양한 동창회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창들의 따뜻한 마음과 참여로 더욱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10월 12일에 대뉴욕지구 동창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데이 크루즈 연례 만찬을 진행하였다. 1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60년을 향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만찬은 동창들의 경험과 추억을 나누고 동창 간의 끈끈한 유대감 및 이화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시간이었다.

2025년 1월 25일에 맨해튼 반주 레스토랑에서 열린 새해 맞이 떡국 잔치에는 90여 명의 동창들이 따뜻한 떡국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동창회의 다양한 행사 소식을 공유하였다. 3월 2일 예정된 음대 100주년 기념 카네기홀 음악회 티켓 판매도 진행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 참석한 한 동창은 “떡국을 나누며 동창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동창회가 이런 따뜻한 만남을 자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PHILADELPHIA

지회장 이교연 (70 영교)

필라델피아 지회는 3월 2일 정혜진(00 현대무용) 동창 자택에서 젊은 동창들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94Plus 소그룹 발족식을 가졌다. 4월에 Longwood Gardens에서 진행된 정기 모임에서는 28명의 동창 및 가족들이 '셀폰으로 좋은 사진 만들기'라는 특강을 통해 아름다운 봄꽃들과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

5월 22일 정기 이사회에서는 11명의 이사들이 모여 동창회 제반 사항과 이웃 돕기 대상 선정에 대한 회의를 했다. 6월에는 매년 열리는 가족 동반 야유회를 Ridley Creek State Park에서 진행하였다. 28명이 모여 유육자(62 약학) 동창이 준비한 불고기를 점심으로 나누고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7월에는 필라 지역 청소년 마약 퇴치 사역 후원 음악회를 강혜란(72 학) 동창 댁에서 개최하여 모금된 금액을 채왕규 목사님께 전달하였다. 8월 정기 모임에는 15명이 모였고 특별 순서로 라인댄스 시간이 있었다. 10월 정기 모임에는 18명이 모여 김은아(91 유아교육) 동창의 '유아기에 중요한 태도와 습관'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10월 24일-27일에 열린 북자연 총회에는 본 지회에서 5명이 참석하였고, 지회 장기자랑으로 강혜란 동창이 전통무용 '살풀이'를 추어 큰 갈채를 받았다. 12월 14일 정기 모임 및 총회 송년 파티에서 2025년 새 회장으로 이교연(70 영어교육) 동창을 선출하였다. 앞으로 필라델피아 지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PORTLAND

지회장 한나리 (92 체육)

포틀랜드 지회는 서부 오리건 주 포틀랜드 지역의 이화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지회이며, 지역 특성상 워싱턴 주와 밴쿠버 지역과도 가까워 이 지역 졸업생들과도 함께 모임을 갖고 있다.

10월말 샌프란시스코 총회 후 11월 중순에 회장 자택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나누며 총회와 학교 소식을 들었다. 내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총회에 지회 동창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12월 초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모임을 갖고 유진경 동창 자택에 모여 여유롭게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점심은 각자 본인이 제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으며, 예술 작품에 버금가는 장식이 더해져 모든 음식 맛에 감탄하며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고 게임을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2025년 2월에는 한식 레스토랑에서 여러 요리와 새해 맞이 떡국을 나누었으며, 신년 계획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과 운동에 관해 지혜들을 나누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겠네.”라는 동창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규모가 작은 지회이지만 동창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헤어짐이 아쉽지만 다음 봄 만남을 기약하였다.

지회 소식

SEATTLE

지회장 **김희정** (83 영문)

레이니어산의 정기를 받아 활력 넘치는 시애틀 지회는 지난 12월 21일에 이화 송년회를 Innis Arden 클럽하우스에서 개최하였다. 70여 명의 동창과 부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애틀 지회의 자랑인 하모니 합창단과 김나혜 동창의 가야금 연주, 한나리 동창의 재치 있는 2부 진행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매년 시애틀 지회에서 선발하는 UW 한국학 장학생으로 Isabella Huelin을 선정하고 시상하였다.



1월 25일에는 김희정 신임 회장 자택에서 30여 명이 모여 이화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이재경 전 회장께 감사패를 수여한 후, 오랜만에 웃놀이를 하며 웃고 떠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올해는 동창회 기금 마련 바자 “이화 장터”를 부활시키고 세월을 뛰어넘는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자 80대 이상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 팔손잔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합창반, 골프반, 사진반, 등산반, 차선방, 이화 아트방으로 나뉘는 소그룹별 월례 모임이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 또한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박명호 동창(78 정외)의 음악 강연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한인을 돕는 기금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처럼 시애틀 지회는 지역 동창 모임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동창회의 표본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다.

ST. LOUIS

지회장 **최혜영** (86 생미)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일년에 네 번의 정기 모임과 매월 진선미회와 진선미 플러스회를 겸한 친목 모임을 한다. 식사비를 한 동창 가정이 부담하면 다른 참석자들은 그 보답으로 국제재단의 세인트루이스 장학 기금에 기부를 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5월 31일 이화여대 138주년 창립 기념식에 정선주(68 성악) 동창과 선재숙(72 의학) 동창이 총장님의 초대로 참석하였다. 두 동창은 Donor Wall Ceremony에서 Donor Wall에 이름이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고, 이대 서울 병원 컨벤션 센터 5세미나실은 빛나는 이화인 ‘선재숙 세미나실’로 명명되었다. 기념 오찬 Donation to Ewha University에서 영원한 이화인, 정선주 동창이 감사패를 받는 기쁨도 누렸다.

지회 창립부터 헌신적인 사랑으로 후배들을 챙겨 주신 최경선 이사장님께서 2024년 9월 6일 소천하셨다.

부군 김승희 박사님께서서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이사장님을 기리며 이화 국제재단에 10만불이 넘는 주식을 기증, 최경선 & Dr. 김승희 장학기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세 명의 동창들이 국제재단에 10만불 이상의 장학 기금을 개설하였다. 2025년 1월 29일 구정 모임에는 김승희 박사님뿐만 아니라 선재숙 동창과 부군 박종관 박사님, 정선주 동창과 부군 김덕진 박사님 등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여 따뜻한 음식과 푸근한 사랑을 나누었다.

2025년 1월 남가주에서 발생한 대화재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가주 동창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금을 보냈다. 이화로 묶여진 사랑이 지역 동창뿐만 아니라 모교와 북미주 지회 전역의 동창들과 한 몸인 것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15

N. TEXAS

지회장 이미리 (83 도서관)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이화여대 북텍사스 지회에서 개최한 제 4회 이화 자선 음악회가 플레이노의 가와이 홀에서 열렸다. 150명이 넘는 이화 동창 및 달라스 내빈들이 함께한 음악회에는 음악 감독 강희정(97 피아노) 동창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조미경(98 성악), 거문고 유정연(98 한국 음악), 소프라노 이규임(14 성악), 바이올린 김예지(15 관현악), 바이올린 김현정(16 관현악), 피아노 조예슬(16 건반)로 구성된 출연자들이 피아노 2중주와 실내악, 한국 음악, 오페라 성악곡 등의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였다. 사회는 한경지(01 영문) 동창이 맡아 연주자와 연주곡을 소개하였으며 엘가, 모짜르트, 거쉰, 베르디, 쇼스타코비치, 포레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악이 연주되었다. 이미리(83 도서관) 회장의 개회사로 여성이 여성을

돕는 이화의 정신을 자선 음악회로 구현하여 지역의 싱글맘과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음악회 취지를 알리며 음악회를 시작하였다. 입장료 수익금과 기부금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싱글맘과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2024년도 이화 연말 파티가 12월 8일 오후 5시 수라 레스토랑에서 거행되었다. 이화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한 이 행사는 이미리 회장의 개회사와 남윤수 동창의 기도로 시작되어 식사와 다과를 나누고 2부의 퀴즈쇼와 경품 추첨으로 진행되었다. 50여 명의 동창들과 가족이 모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하며 선물을 나누었다.



TORONTO

지회장 조혜라 (96 영문)



2024년은 토론토 지회가 세워진 지 5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모임과 축하가 풍성한 한 해였다. 신년 임원회의로 한 해를 시작하고 세 차례 햇불회, 총회, 야유회 등의 행사를 이어감과 동시에 9월에 계획한 음악회를 위한 더 많은 연습과 모임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동창들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며 행사를 준비하였다.

9월 음악회에서는 동창, 사위, 자제분들 가운데 현재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동창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이화 사위들의 중창 역시 프로 음악인 못지 않은 멋진 노래를 선사했으며, 토론토 동창들이 모여 연습한 합창이 마지막 무대를 채우며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동창들의 열정이 모인 음악회를 마무리하였다.

언제나 한 해의 마무리는 멋진 연말 파티! 토론토 동창회 50주년을 기념하는 'Golden Jubilee'를 주제로 금빛 찬란한 멋진 모습으로 파티에 참여해 주신 동창과 사위,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게임의 시간으로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였다.

2025년은 새로 시작되는 또 다른 50년을 꿈꾸며 1월 신년 임원회의로 한 해를 계획하고 친목을 다졌다. 올해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햇불회 모임, 야외의 햇살 아래 즐거운 야유회,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동호회 모임,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파티에 이르기까지 선후배들의 즐거운 교제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회 소식

VANCOUVER

지회장 **배윤향** (85 정외)



이화 밴쿠버 동창회는 올해 첫 동창들의 만남으로 구정 맞이 모임을 하였다. 특히 구순을 맞이한 대선배 현지영 및 김정숙 동창과 팔순을 맞이한 이화자, 유명숙, 조남영, 정옥향 동창들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여 축하 떡과 풍성한 음식이 준비된 더욱 즐거운 구정 모임을 보냈다. 특히 현지영 동창이 음식과 디저트를 기부하였고, 팔순을 맞은 네 분의 동창들의 감사 기부로 2025년도 밴쿠버 동창회는 넉넉한 마음으로 한해의 문을 활기차게 열었다.

밴쿠버 동창회는 1935년생부터 1993년생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나이와 세대를 넘어서는 동창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교류하며 친분을 도모하고,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60여 년이 되는 동안 동창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

WASHINGTON DC

지회장 **이지은** (96 불문)



워싱턴 DC 지회는 2024년 4월 20일 최선영(79 섬유예술) 동창을 강사로 모시고 "웰빙 인테리어와 정리"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약 3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고 새 동창들의 소개와 환영의 자리가 함께 마련되었다.

7월 21일에는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Backpack Drive 봉사활동을 이윤진(94 불문) 동창 자택에서 진행하였다. 동창/자녀들과 함께 DC 소외계층 아이들 40명을 위한 학용품과 백팩을 준비하여 비영리단체 Little Lights에 전달하였다.

10월 3일에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South Riding Golf Club에서 동창 친선 골프 아우팅을 주최하였다. 이 행사는 2025년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1월 19일에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Calvary Women's Services를 방문하여 워싱턴 DC 지회 니팅클럽에서 만든 모자 54개와 목도리 10개를 전달하였다. 이 단체는 가정폭력이나 약물중독 등으로 일자리와 가족을 잃은 여성들에게 자립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지회에서 매년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12월 14일 Westwood Country Club에서 "Go Ewha, Go Forward, 2025!" 라는 주제로 연말파티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지은(96 불문) 회장의 2025년도 회장 연임이 인준되었으며 총회를 위한 슬로건이 발표되었고, 김성혜(88 보건교육) 모금위원장 및 최미나(90 관현악) 준비위원장과 함께 성공적인 2025년 총회 개최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3760
TEL : 02-3277-3386, 3387 FAX : 02-393-9141
www.ewhaalum.or.k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 (82-2) 3277-3386, 3387 FAX : (82-2) 393-9141
www.ewhaalum.or.kr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께

안녕하십니까, 19대 총동창회장 이명경입니다.

모교와 총동창회를 향한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이화 139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진선미의 이화정신, 즉 나눔과섬김, 봉사의 마음을 항상 되새기며 새 소망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총동창회는, 지난 2001년 시카고의 일부 동창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위 '북미주 동창회(북미주 총동창회에서 2009년 북미주 동창회로 명칭 변경)'로 인해 '북미주 지회연합회' 소속동창 여러분께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총동창회 그리고 이화국제재단 및 모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오랜 기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정통성을 가진 단체로서, 총동창회 회칙에 따라 북미주 지역의 공식 지회연합회로 인정되었으며, 총동창회 동창회보의 '이화동창' 로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모교 및 총동창회의 이 같은 입장은, 역대 총동창회장과 총장 명의로 북미주 지역 동창들께 전달된 여러 서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각 서면의 간략한 요약 및 해외지회 관련 총동창회 회칙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 여러분, 우리는 이화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화합과 조화 속에서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총동창회는, 북미주의 모든 동창이 한마음으로 이화동창이라는 공동체로서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화가 한국의 '이화'를 넘어 세계의 '이화'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견인차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명경



[첨부-1]

'북미주동창회'와 관련하여 모교 및 동창회가 표명한 공식 입장요약

- 2001년 6월 및 10월, 최명숙 총동창회장(제13대), 장상 총장, 윤후정 이사장이 공동으로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낸 두 차례의 서면
'북미주지회'가 동창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면서 총동창회, 국제재단 및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시카고 지회의 일부 동창들이 주도하고 있는 '북미주총동창회'의 결성은 이화가 지켜온 화합과 협력의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함.
- 2001년 11월, 최명숙 총동창회장(제13대)이 북미주 지회장 및 회원에게 보낸 서면
동창회칙에 따른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총동창회 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회결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위 '북미주총동창회'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본 동창회와 무관함을 확인한 총동창회 정기임원회의(2001년 11월 20일) 결과를 북미주지회장 및 회원들에게 알림.
- 2004년 8월, 윤순희 총동창회장(제14대)이 북미주 지회장 및 회원에게 보낸 서면
동창회 회칙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북미주총동창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총동창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40년의 역사성이 인정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함.
- 2007년 8월, 김순영 총동창회장(제15대)이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낸 서면
모교와 총동창회가 북미주 지역 공식 동창회로 인정하는 것은 '북미주지회연합회'임을 재차 천명하며, '북미주총동창회'가 본연의 '북미주지회연합회'로 합류하여 이화동창이라는 공동체로서 화합하기를 촉구함.
- 2015년 9월, 김영주 총동창회장(제17대)이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낸 서면
'북미주지회연합회'와 '북미주동창회'의 이름을 구별할 것을 당부하며, 모교와 총동창회가 북미주 지역의 동창회로 정식 인준한 곳은 '북미주지회연합회' 뿐임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북미주동창회'가 속히 '북미주지회연합회'에 합류하기를 촉구함.

■ 2015년 9월, 최정희 총장이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낸 서면

총동창회와 오랫동안 함께 헌신해 온 '북미주지회연합회'를 중심으로 북미주 지역 동창들의 역량을 모아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7장 지회

제23조(설치자격)

- ① 정회원인 30인 이상 되는 지방 및 해외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지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회의 회칙 수락
 2. 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
- ② 조직된 지회는 이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제24조(입회절차)

- ① 전조의 조건을 갖춘 지방 및 해외 동창 조직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지회 창립총회 회의록
 2. 지회 회원 및 임원 명단
 3. 지회 회칙
- ② 지회의 입회 승인은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회에 통고한다.
- ③ 이미 조직된 지회에서 분리된 모임은 이 회에 입회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 지회의 승인을 얻어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지회연합회)

- ① 해외지회는 국가별로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 총동창회는 지회와 연합회를 통합한다.
- ② 지회와 지회연합회 회칙은 총동창회 회칙에 위배될 수 없다. 다만, 위배여부는 총동창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협력)

이회와 지회 및 지회연합회는 모교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

연도	지회명	지회장
1976	Washington DC	김정자(62 가정)
1977	New York	이해경(50 음악)
1978	Chicago	전신애(65 영문)
1979	New York	장한희(53 기독교)
1980	Detroit	김신형(49 가정)
1981	S. California	김성자(61 교육)
1982	Chicago	최순자(66 의과)
1983	New York	조 연(61 약학)
1984	Philadelphia	장창희(62 가정)
1985	Washington DC	한순정(58 미술)
1986	N. California	이명희(62 교육)
1987	New York	이부자(60 사회)
1988	Toronto	여정자(67 기독교)
1989	Chicago	최경혜(60 법학)
1990	S. California	이희성(60 영문)
1991	N. California	최충자(62 사회)
1992	Detroit	김정숙(62 의과)
1993	Houston	임예자(65 사학)
1994	New York	임병대(60 교심)
1995	Washington DC	오성미(64 영문)
1996	Boston	김경애(70 의학)
1997	Toronto	정인영(68 물리)
1998	Atlanta	김은숙(68 사학)
1999	Chicago	윤미혜(64 사사)
2000	S. California	김대훈(60 화학)
2001	Detroit	차승순(70 기약)
2002	Orlando	하명숙(66 체육)
2003	N. California	강영자(64 기독교)
2004	Houston	김성혜(72 식영)
2005	Cleveland	이선희(70 교심)
2006	Toronto	강선희(67 교육)
2007	New York	최성남(70 약학)
2008	Seattle	이정형(63 약학)
2009	Denver	이미옥(68 국문)
2010	S. California	오명애(74 장미)
2011	Boston	조수현(76 수학)
2012	Vancouver	강유순(67 약학)
2013	Washington DC	오혜경(72 영문)

연도	지회명	지회장
2014	N. California	제갈숙경(79 기약)
2015	Atlanta	김정희(79 약학)
2016	Houston	김명옥(75 경영)
2017	New York	박영숙(86 경영)
2018	Toronto	박현주(89 물리)
2019	Seattle	신경림(80 장미)
2020	N. Texas	신동진(85 섬예)
2021	Detroit	황수영(89 화학)
2022	S. California	정현숙(87 체육)
2023	Boston	김지영(82 교육)
2024	N. California	이영완(81 정외)
2025	Washington DC	이지은(96 불문)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주	지회명	지회장
AK	Alaska	김수연(96 커미부)
CA	N. California	이영완(81 정외)
CA	S. California	조혜진(89 장미)
CO	Denver	장문선(94 도예)
GA	Atlanta	차희숙(77 체육)
HI	Hawaii	이정란(85 영문)
IL	Illinois	서석영(94 정외)
MA	Boston	공정원(83 영문)
MD	Baltimore	금영진(80 의직)
MI	Detroit	박은하(92 교공)
MN	Minnesota	김정은(90 체육)
MO	St. Louis	최혜영(86 생미)
NY	New York	김영신(88 독문)
OH	Cleveland	김예경(96 사생)
OR	Portland	한나리(92 체육)
PA	Philadelphia	이교연(70 영교)
TX	Houston	이은경(92 사생)
TX	N. Texas	이미리(83 도서)
WA	Seattle	김희정(83 영문)
DC	Washington DC	이지은(96 불문)
Canada	Montreal	김명원(92 수학)
Canada	Ottawa	황명희(93 영문)
Canada	Toronto	조혜라(96 영문)
Canada	Vancouver	배윤향(85 정외)

동창회 장학금 / 기금 소식

2024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된 지회별 장학금 / 기타 목적별 기금 / 지회 지역 장학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동창 그룹별 장학금	2024 지급액 (\$)	2024 장학금 수혜자
간호대학 장학금	5,000	김한솔(간호대학) 외 1명
남가주 지회	7,500	이연우(사회과학대학) 외 2명
남가주 써머스쿨	10,500	Sonny Jung(Univ. of CA) 외 2명
뉴욕 지회	15,000	장해인(간호대학, 석사) 외 5명
디트로이트 지회	7,500	조유담(인공지능대학) 외 1명
미네소타 지회	2,500	Shi, Xiangcao(음악대학)
보스턴 지회	10,000	최은수(경영대학) 외 3명
볼티모어 지회	2,500	이채영(공과대학)
북가주 지회	7,500	최은비(조형예술대학) 외 2명
북텍사스 지회	2,500	강서영(사회과학대학)
시애틀 지회	2,500	이유진(공과대학)
애틀랜타 지회	7,500	김수정(간호대학) 외 2명
워싱턴 DC 써머스쿨	7,000	Anthony Chung(Northwestern Univ.) 외 1명
워싱턴 DC 지회	7,500	최민정(인공지능대학) 외 2명
클리블랜드 지회	7,500	정재윤(사회과학대학) 외 2명
토론토 지회	7,500	염지원(사회과학대학) 외 2명
휴스턴 지회	7,500	윤보녕(조형예술대학) 외 2명
지회/그룹별 기금 합계: \$117,500.00		

기타 목적별 기금 (기간: 01/01/2024 - 12/31/2024)

기타 목적별 기금	지급액(\$)	기타 목적별 기금	지급액(\$)
간호대학 건축 기금	138,100	의과대학 연구 기금	15,000
간호대학 발전 기금	3,000	이화여대 발전 기금	30,000
법대 장학금	20,000	이화 첨단 도서관 기금(가칭 Helen Library Project)	5,000
약학대학 건축 기금	13,000	이화 해외 동창 기금(Ewha West Campus Project)	50,000
약학대학 발전 기금	100,000	인공지능(AI) 교육 발전 기금	20,000
영문과 발전 기금	500	Ewha West Campus Project	176,101
의과대학 발전 기금	5,000	기타 목적별 기금 합계: \$575,701.00	

지회명	장학금 및 후원 내용
남가주 지회	지역 장학금 \$7,000; 비영리 단체 후원금 \$300
뉴욕 지회	지역 장학금 \$10,000
디트로이트 지회	동창 유학생(Univ. of Michigan/Michigan State Univ) \$3,500; 지역사회 \$1,000; 동창 자녀 \$1,000
보스턴 지회	지역 장학금 \$4,500; 선교비 \$500;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 \$300
시애틀 지회	University of Washington, Korean Studies 장학금 \$1,000; 동창 가족 자녀 장학금 \$1,000; 불우이웃 돕기 \$2,000; American Red Cross \$2,000
애틀랜타 지회	지역 장학금 \$2,000; 고국 동창회 선교부 \$2,000; 한인회 패밀리센터 \$600
워싱턴 DC 지회	지역 장학금 \$2,000; 홀리스 쉼터 \$1,000; 빈민지역 아동 대상 책가방 기부 \$2,320; 선교비 \$500
클리블랜드 지회	Womankind Maternal & Prenatal Care Center \$300; Domestic Violence Center \$300
토론토 지회	지역 장학금 \$5,408; 선교 후원금 \$705
필라델피아 지회	청소년 마약퇴치 사역 후원금 \$4200
휴스턴 지회	지역 장학금 \$2,000; Life Tree Ministries(난민 사역) \$1,200
장학금 및 후원 합계: \$58,633.00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일정

10월 23일 (목)	03:00 PM - 10:00 PM	호텔 체크인 및 총회 등록
	06:00 PM - 07:5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회의
	08:0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정기 이사회
10월 24일 (금)	07:00 AM - 08:30 AM	아침 식사
	08:30 AM - 09:30 AM	총회
	10:00 AM - 11:00 AM	오전 만남 '필라테스/요가' - 어깨 활짝, 자신감 up! 오십견 탈출
	02:30 PM - 03:30 PM	오후 만남 '이화, 우리가 사랑한 클래식'
	04:10 PM - 05:00 PM	이화 합창 연습
	05:00 PM - 06:00 PM	각 지회 탤런트 쇼 리허설
	06:00 PM - 10:00 PM	총장님과의 만찬 및 각 지회 탤런트 쇼 (이화인의 밤)
10월 25일 (토)	07:00 AM - 08:30 AM	아침 식사
	10:00 AM - 11:30 AM	오전 만남 '나만의 컬러를 찾아서' -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퍼스널 컬러 컨설팅
	12:00 PM	케네디 센터 출발
	12:40 PM - 02:00 PM	케네디 센터에서의 점심 식사
	02:00 PM - 04:00 PM	이화여대 음대 100주년 콘서트 @케네디 센터
	05:00 PM - 06:00 PM	이화 합창 연습
	06:00 PM - 06:30 PM	리셉션 및 개인 사진 촬영
	06:3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
10월 26일 (일)	07:00 AM - 08:30 AM	아침 식사
	08:30 AM - 09:30 AM	예배
	09:30 AM - 10:30 AM	총장님과의 대화
	10:30 AM	작별 인사 및 체크아웃

관광 안내

일일 관광	10월 24일 (금) 09:40 AM - 04:00 PM	*참가비 \$100(차량 및 점심 포함) ● Smithsonian 박물관 - National Gallery of Art-West & East - 21개의 Smithsonian 박물관 중 선택 ● 점심: Smithsonian National Gallery of Art 카페 ● 백악관 및 백악관 박물관(The People's House) ● 주미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 Museum)
	선택 1. 10월 25일 (토) 09:00 AM - 05:00 PM	*참가비 \$100(차량 및 점심 포함) ● 워싱턴 DC 관광: 국회 의사당 내 투어,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한국전 기념비 등 ● 점심: 케네디 센터 테라스 또는 야외 가든 ● 케네디 센터(John F. Kennedy Center)에서의 콘서트 관람: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100주년 기념 콘서트
	선택 2. 10월 25일 (토) 12:00 PM - 05:00 PM	*참가비 \$50(차량 및 점심 포함) ● 점심: 케네디 센터 테라스 또는 야외 가든 ● 케네디 센터(John F. Kennedy Center)에서의 콘서트 관람: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100주년 기념 콘서트

*모든 참가비는 1인 기준이며, 일정이나 가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 “EWHA in(人) DC: Go Together, Blossom Forever!”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거주지 주소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지회		졸업 학과		졸업 연도
동행자 수	본인 제외	명	동행자 이름:	

행사 날짜	행사 내용	참가비(US \$)	인원수	합 계
10월 23일 (목)	총회 참가 등록*	\$30		
10월 24일 (금)	아침 식사	\$30		
	오전 만남: ‘필라테스/요가’	Free		
	오후 만남: ‘이화, 우리가 사랑한 클래식’	Free		
	총장님과의 만찬	\$150		
10월 25일 (토)	아침 식사	\$30		
	오전 만남: ‘Color consultation, 나만의 컬러를 찾아서’	\$30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	\$150		
10월 26일 (일)	아침 식사	\$30		
관광 신청	10/24 (금) ‘역사를 품은 예술, 예술을 담은 역사’ - Smithsonian 미술관과 박물관, 백악관 및 백악관 박물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방문	\$100 점심 포함		
	10/25 (토) 선택 1: 워싱턴 DC 관광: 국회 의사당 내부 투어,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한국전 기념비 등 케네디 센터에서의 콘서트 관람: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100주년 기념 콘서트	\$100 점심 포함		
	10/25 (토) 선택 2: 케네디 센터에서의 콘서트 관람	\$50 차량 및 점심 포함		
커피 사전 주문	이화 커피 유명 커피 로스터와 워싱턴 DC 지회가 함께 준비한 이화 커피의 사전 주문	\$10	주문 수	
			개	
			총액**	

* 8월 31일 전까지 참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참가 등록비 \$30이 면제됩니다.

** 참가비가 결제되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가비는 반드시 체크로 써서 우편으로 발송해 주세요.

참가 신청 마감 (9/15/25) 조기 등록 마감 08/31/25 (등록비 면제)	신청서와 check을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Check의 메모란에 반드시, 이름, 졸업 연도, 학과, 지회를 기재해 주세요) • Payable to: Ewha • 주소: Jeannie Moon, 43258 Menemsha Ln, Chantilly, VA 20152 • 온라인 등록: ewhana.org 또는 오른쪽 QR 코드 사용 (온라인 등록도 참가비는 체크를 우편으로 꼭 보내주세요)	
호텔 예약 마감 (9/15/25)	HYATT REGENCY DULLES, 2300 Dulles Corner Blvd, Herndon, VA 20171 • 온라인 예약: 오른쪽 QR 코드 사용 (할인코드 GUN90) • 전화 예약: Ewha Woman's University Reunion • 객실 가격: \$159/room + TAX (2인까지, 3명 또는 4명 \$179)	
공항-호텔 간 교통	Dulles 공항(Dulle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3마일 거리, 공항과 호텔 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참가 문의 : admin@ewhadcchapter.org

일일 관광

10월 24일 (금)		“역사를 품은 예술, 예술을 담은 역사” 선조와 선배님들의 눈물이 깃든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강탈되고 1910년 강제 매도된 공사관을 2012년 재매입하여 2018년에 개관한 역사의 장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워싱턴 DC의 100개 가까운 박물관 중 21개가 소속된 Smithsonian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인 National Gallery of Art와 함께 인근 Smithsonian 소속 박물관을 둘러보고 2024년에 새롭게 문을 연 미국 역사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백악관 박물관을 찾아가합니다.
10월 25일 (토)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이화의 선율에 물들다” 미합중국의 중심인 국회의사당 내부 투어와 함께 워싱턴을 상징하는 기념관(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한국전 기념비 등)을 둘러보고 포토맥강과 제퍼슨 기념관을 바라보며 점심 식사를 한 후, 워싱턴의 중심 케네디 센터에서 음악과 무용이 함께 펼치는 이화여대 음대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관람합니다.

호텔 내 활동 (Daily Activities)

10월 24일 (금)	오전 만남 10:00 AM - 11:00 AM	필라테스 / 요가	어깨 활짝, 자신감 up! 오십견 탈출 필라테스-여행으로 지친 몸을 리프레시합니다. 자세만 바뀌어도 10년 젊어 보이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만남 02:30 PM - 03:30 PM	“이화, 우리가 사랑한 클래식”	우리가 사랑한 클래식 음악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넘어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과 슬픔, 혁신과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명곡들의 탄생 배경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클래식, 그 음악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클래식으로의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10월 25일 (토)	오전 만남 10:00 AM - 11:30 AM	“나만의 컬러를 찾아서” -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퍼스널 컬러 컨설팅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컬러는? 타고난 눈동자, 헤어, 피부 등의 신체 컬러를 바탕으로 퍼스널 컬러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봅시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컬러 팁도 배우며 더 빛나는 나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만남 12:00 PM - 05:00 PM 	케네디 센터 공연	1925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시작된 음악 교육의 여정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 2025년,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찬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국악과 클래식, 고전무용과 현대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ince 1925

최초의 100년을 넘어 최고로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음악회

2025년 10월 25일 (토) 오후 2시
Kennedy Center, Terrace Hall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 고전무용과 현대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2025년 워싱턴 DC 총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희망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한 실 한 올, 희망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
워싱턴 DC 지회 니팅 클럽

워싱턴 DC 지회 니팅 클럽은 매해 워싱턴 DC 지회 동창회와 이사회의
 도네이션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여성 홀리스 웰터, Calvary Women's Services를
 통해 홀리스 여성들에게 모자와 목도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정성을 나눌 동창님을 환영합니다. (연락: 워싱턴 DC 지회)





Realtor®
김경아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Office : 703-766-2710 / Fax : 703-766-2720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김경아 / 영문 81

Holistic College Consulting은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미국 대학 입시 준비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 CONSULTING

1. One Time Consulting
2. Annual Membership
3. Customized Planning Service

▶ COLLEGE APPLICATION ASSISTANCE

1. Total Service
2. Essay Assistance
3. Other Services

▶ PRIVATE TUTORING

▶ SPECIAL SERVICES

1. 과외 활동 구성
2. Supplement(대입 보조 자료) 구성
3. 통합 의대, 의대, 미대 특별 진학 지도

www.holisticcollegeconsult.com
holistic.college.consult@gmail.com

"미국 대학 입시 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책



**아는 만큼 보이는
미국 대학 입시**

2025~2026 개정증보판

허혜경 지음

- * 한국 내 시중 서점
- * 인터넷 구입: 교보, 영풍, 알라딘 등
- * us.aladin.co.kr에서 해외 구입 가능
- * 미국 내 저자 직배송 가능

미국 대학 입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더불어 보다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허혜경 / 초교 88

위 내시경, 장 내시경 식도, 위암, 대장암 조기 진단



GASTRO
HEALTH



Mu Kyung Hong, M.D.

Georgetown University 졸업
Georgetown University 의과 대학 졸업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내과 전문의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소화기 내과 전문의
National Cancer Institute, Research Fellow

Conditions Treated

- Colon Cancer Screening
- Colon Diseases and Polyps
- Stomach Cancer
- Esophageal Disease
- Digestive Health Conditions

홍무경 소화기 내과

Gastro Health - Annandale

7004 Little River Turnpike, Suite A
Annandale, VA 22003

김 원 / 영문 83

Office: 703-642-0900 • Fax: 877-686-5661 • GastroHealth.com/Mu-Hong



정인숙 내과

정인숙 내과 전문의, 37년의 내과 경력

이대 의대 졸업

Philadelphia Episcopal Hospital internal medicine internship and residency

University of Maryland Infectious Diseases Fellowship

Fairfax Hospital admission privilege

◆ 진료과목 ◆

영주권 검사

콜레스테롤

부인병

신체검사

갑상선

예방주사

당뇨, 고혈압

비만 치료

보톡스와 필러

정인숙 / 의학 82 입학

이대 동창들의 워싱턴 DC 방문을 환영합니다!

4229 Lafayette Center Dr. #1790, Chantilly, VA 20151 • Tel. 703.378.3508

WELCOME TO ASBURY METHODIST VILLAGE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Tucked away on 136 beautiful acres near Washington, D.C., Asbury Methodist Village is more than just a community—it's a place where lifelong learning, well-being, and friendships flourish. With deep roots in Methodist heritage and a shared commitment to innovation with Ewha Women's University, Asbury blends tradition with the latest technology to support independence and enhance daily life.

Experience More:

Inspiring cultural programs and events | A breathtaking arboretum and wildlife preserve
A welcoming, inclusive community | Smart home technology designed for independent living



Discover a place where every day offers new opportunities.

Visit AsburyMethodistVillage.org
or call (301) 453-8101.



신장현 / 교육 57

ASBURY
Methodist Village
Anticipate More



201 Russell Ave | Gaithersburg, MD 20877



alexandria braces

5901 Kingstowne Village Parkway, Suite 304
Alexandria, VA 22315
Tel. 703.347.9876
alexandriabraces.com

William S. Lee DDS, P.C.



At Alexandria Braces, our seasoned team is dedicated to providing exceptional orthodontic care in a patient focused manner. You can be rest assured that you're receiving top-tier treatment tailored to your unique needs. Leading our practice is Dr. William S. Lee, a distinguished specialist in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and a proud member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With more than two decades of experience practicing exclusively in the Washington area. Along with his numerous accolades his training consists of the following:

EDUCATION

- Univ. of Pennsylvania. BA Biophysics
- Columbia Univ. Doctorate of Dental Surgery
- Yale Univ. General Practice Residency
- Columbia Univ. Specialty Residency in Orthodontics



SPECIALIZATION

Dr. William S. Lee specializes in Orthodontics for adults and children.



AWARDED TOP ORTHODONTIST BY FOLLOWING MAGAZINES

Washingtonian 2019-2025
Virginia Living 2018-2024
Northern VA Magazine 2015-2024
Arlington 2020, 2022, 2024



이윤진 / 불문 94

INTERNATIONAL SUMMER MUSIC INSTITUTE, TODI, ITALY

**LEARN TO SPEAK ITALIAN AND SING
FOR TWO WEEKS.**

Study in the beautiful hilltop town of Umbria, Italy, surrounded by medieval buildings in the central Piazza del Popolo, from June 23 to July 5, 2025. The program will take place at La Lingua La Vita for Learn to Speak Italian and Scuola Comunale di Musica di Todi for Singing.



AAMS EMERGING ARTIST WORKSHOP, REACH, KENNEDY CENTER

GET READY FOR YAP FOR ONE WEEK.

The AAMS Emerging Young Artist Intensive Workshop will take place from June 16 to June 20, 2025 at the REACH, Kennedy Center, with a finale performance on June 21, 2025 at Millennium Stage. The program includes private coaching, diction, interpretation, improvisation, singing with body movement, and master classes, aimed at young artists preparing for master's and Young Artists Programs.

AAMS INTERNATIONAL VOICE COMPETITION AGES 20 TO 27

on every 4th Saturday of October.



The winners will be performing at
the Millennium Stage, Kennedy Center



AAMS OPERA

Information: www.aamsoper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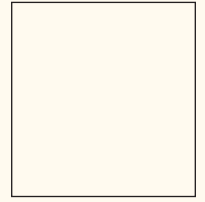
Contact: webmaster@aamsopera.com



양미라 / 성악 75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Washington DC Chapter

<https://ewhadcchapter.org/>



To: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 모임으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본교 총동창회에 등록되어 있는 23개 북미주 지회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화 그린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whana.org